

韓 国 語

(解答番号 ~)

第 1 問 次の問い(A～C)に答えよ。(配点 32)

A 次の問い(問 1・問 2)の文の下線部㉠・㉡を, 例に示したようにハングルで発音表記する場合, その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 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例 저기 ㉠있는 것이 질도 ㉡좋고 값도 싸요.
発音表記 ㉠ [인느] — ㉡ [조코]

問 1 농담으로 한 말을 ㉠끝이들은 것이 ㉡잘못이다.

- ① ㉠ [고지드른] — ㉡ [잘모디다]
- ② ㉠ [고디드른] — ㉡ [잘모디다]
- ③ ㉠ [고지드른] — ㉡ [잘모시다]
- ④ ㉠ [고디드른] — ㉡ [잘모시다]

問 2 ㉠봄바람에 ㉡풀잎이 흔들린다.

- ① ㉠ [봄바라메] — ㉡ [푸리피]
- ② ㉠ [봄빠라메] — ㉡ [푸리피]
- ③ ㉠ [봄바라메] — ㉡ [폴리피]
- ④ ㉠ [봄빠라메] — ㉡ [폴리피]

B 次の問い(問1～3)の文において、下線部のハングル表記が正しくない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3

- ① 날씨가 좋아서 먼 산까지 뚜렷이 보인다.
- ② 수술을 받고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다.
- ③ 딸아이를 보며 빙긔 미소를 지어 보였다.
- ④ 그는 어머니의 손을 살몏이 잡았다.

問2 4

- ① 조름을 참아 가며 밤새워 시험공부를 하였다.
- ②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 ③ 선수가 교체된 후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 ④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느라 책과 씨름하고 있다.

問3 5

- 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신발이 다 닳아 버렸다.
- ② 동생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 ③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들려온다.
- ④ 배가 고픈지 개가 빈 그릇을 핥고 있다.

韓国語

C 次の問い(問1～3)において、a～cは韓国語の単語を漢字で表記したものである。下線部をハングルで表記した場合(例：長 장)の異同について正しく述べた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⑤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なお、()内は日本の常用漢字の字体である。

問 1 6

- | | | |
|---------------------------|---------------------------|---------------------------|
| a <u>構</u> 成(<u>構</u> 成) | b <u>購</u> 入(<u>購</u> 入) | c <u>講</u> 義(<u>講</u> 義) |
| ① a と b が同じ | ② a と c が同じ | ③ b と c が同じ |
| ④ すべてが同じ | ⑤ すべてが異なる | |

問 2 7

- | | | |
|---------------------------|---------------------------|--------------|
| a <u>祕</u> 密(<u>秘</u> 密) | b <u>批</u> 判(<u>批</u> 判) | c <u>費</u> 用 |
| ① a と b が同じ | ② a と c が同じ | ③ b と c が同じ |
| ④ すべてが同じ | ⑤ すべてが異なる | |

問 3 8

- | | | |
|----------------------------|--------------|--------------|
| a 月 <u>給</u> (月 <u>給</u>) | b <u>救</u> 助 | c <u>休</u> 息 |
| ① a と b が同じ | ② a と c が同じ | ③ b と c が同じ |
| ④ すべてが同じ | ⑤ すべてが異なる | |

(下書き用紙)

韓国語の試験問題は次に続く。

韓国語

第2問 次の問い(A～F)に答えよ。(配点 80)

A 次の問い(問1・問2)の下線部の単語について、辞書の見出し語の形にした場合、その組合せとして正しい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9

물에 담근 콩이 불었다.

밥을 국에 말아서 먹었다.

① 불다 — 말다

② 분다 — 말다

③ 불다 — 말다

④ 분다 — 말다

問2

10

바다에 배를 띄웠다.

1년 이상을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너무 고달팠어요.

① 띄다 — 고달파다

② 띄우다 — 고달파다

③ 띄다 — 고달프다

④ 띄우다 — 고달프다

B 次の問い(問1・問2)において、ア～ウのように単語の形を変えたとき、その正誤の組合せとして正しい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⑧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11

ア 수줍다 → 수주워요

イ 퍼다 → 퍼어요

ウ 돈다 → 돌아요

① ア 正 イ 正 ウ 正

② ア 正 イ 正 ウ 誤

③ ア 正 イ 誤 ウ 正

④ ア 正 イ 誤 ウ 誤

⑤ ア 誤 イ 正 ウ 正

⑥ ア 誤 イ 正 ウ 誤

⑦ ア 誤 イ 誤 ウ 正

⑧ ア 誤 イ 誤 ウ 誤

問2 12

ア 이르다(早い) → 일러

イ 이르다(至る) → 일러

ウ 이르다(言う) → 일러

① ア 正 イ 正 ウ 正

② ア 正 イ 正 ウ 誤

③ ア 正 イ 誤 ウ 正

④ ア 正 イ 誤 ウ 誤

⑤ ア 誤 イ 正 ウ 正

⑥ ア 誤 イ 正 ウ 誤

⑦ ア 誤 イ 誤 ウ 正

⑧ ア 誤 イ 誤 ウ 誤

韓国語

C 次の問い(問1～6)の 13 ～ 18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한 13 희망을 걸고 선생님을 찾아갔다.

- ① 가닥 ② 줄 ③ 자루 ④ 그루

問2 그 아이는 유난히 고집이 14 편이다.

- ① 많은 ② 적은 ③ 센 ④ 약한

問3 도대체 나 15 뭘 어찌란 말이야?

- ① 보고 ② 로써 ③ 라도 ④ 대로

問4 우리도 사람이 모자라는 16 에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가 있겠니?

- ① 참 ② 적 ③ 범 ④ 판

問5 그 사람은 사회 문제에 17 관심이 없다.

- ① 텅 ② 통 ③ 탁 ④ 툇

問6 보고서를 18 이번 기획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 ① 보느라고 ② 보고서야
③ 본다면서 ④ 본다더니

D 次の問い(問1～4)において、下線部の語句と入れ替えたとき、文意が最も近くなる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이 아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꼭 장난을 치고 놀아요. 19

- | | |
|----------|----------|
| ① 만나다기보다 | ② 만날망정 |
| ③ 만날 때마다 | ④ 만나는 대로 |

問2 좀 더 빨리 오지 그랬어. 20

- | | |
|-------------|------------|
| ① 올 수밖에 없었어 | ② 와 있었을 거야 |
| ③ 오기를 잘했어 | ④ 왔으면 좋았을걸 |

問3 거짓말은 나중에 들키기 마련이다. 21

- | | |
|------------|--------------|
| ① 들키게 돼 있다 | ② 들킬 수도 있다 |
| ③ 들킬지도 모른다 | ④ 들킬 것 같지 않다 |

問4 그 제품은 새것은커녕 중고도 구하기가 힘들 거야. 22

- | | |
|------------|--------------|
| ① 새것은 아니어도 | ② 새것은 있을 뿐더러 |
| ③ 새것은 줬더니 | ④ 새것은 고사하고 |

F 次の問い(問1・問2)において、その説明に相当するもの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졸리거나 고단할 때 저절로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것. 27

- ① 한숨 ② 기침 ③ 하품 ④ 재채기

問2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다. 28

- ① 뻔뻔하다 ② 꼼꼼하다 ③ 생생하다 ④ 당당하다

韓国語

第3問 次の問い(A～C)に答えよ。(配点 40)

A 次の問い(問1～6)の ～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 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A : 저기, 게시판 앞에 서 있는 사람, 어제도 여기서 봤는데 누구지?

B : 저 사람?

A : 그랬구나. 나는 왜 몰랐지?

- ① 지난달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야.
- ② 여기서 누구 기다리는 거 아냐?
- ③ 나도 어제 여기서 봤던 거 같아.
- ④ 검은 가방을 든 남자 말이지?

問2 A : 좀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자.

B : 너 먼저 들어가. 난 좀 더 연습할게. 고 하잖아.

A : 그건 아는 거라도 잘 확인해서 실수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말 아냐? 이럴 때 쓰는 말 아닌 거 같은데.

- 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 ②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 ③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 ④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問 3 A : 가만,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B : 어? 31

A : 그래, 하나 장만했어. 한번 볼래?

- ① 시계 샀어?
- ② 시계 없냐?
- ③ 시계 고쳤냐?
- ④ 시계 안 가?

問 4 A : 엄마, 이제 제 방은 청소하지 마세요.

32

B : 웬일이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A : 저도 대학생이 됐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죠.

- ① 언제나 집안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 ② 다음 주에는 아르바이트도 그만둘게요.
- ③ 안 그래도 청소기도 새로 사야 되잖아요.
- ④ 오늘부터는 제 빨래도 제가 할게요.

問 5 A :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너도 좀 먹어 봐.

B : 그래. 먹어 볼게. 33

A : 그, 그래? 난 괜찮던데.

- ① 와, 먹을 만하네.
- ② 오호, 남 주기 아깝네.
- ③ 음, 내놓기 좀 뭐하다.
- ④ 야, 딱이다.

韓國語

問 6 A : 34

B : 그러니? 난 아냐. 가끔 형이 있었으면 싶을 때도 있어.

A : 나는 네가 부러워. 난 어려서부터 늘 언니가 쓰던 걸 물려받아서
내 거란 게 없었거든.

B : 음, 나는 외아들이라 그런 건 잘 몰라.

- ① 난 언니 옷을 물려받는 건 지겨워.
- ② 넌 형제가 없으니까 좋겠다.
- ③ 나도 너처럼 누나가 있었으면 해.
- ④ 너도 동생이어서 좋을 때도 있지.

(下書き用紙)

韓国語の試験問題は次に続く。

韓国語

B 次の会話文を読み, 下の問い(問1・問2)に答えよ。

A : 지훈아, 주말에 종희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넌 안 갈래?

B : 이번 주말에? 어떡하지? 난 약속이 있는데……. 미리 좀 얘기하지.

A : 그저께 종희한테서 메일이 왔거든.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

B : 너 혼자 수원까지 갈 거야?

A : 아니야. 지호랑 같이 갈 거야.

B : 뭐? 지호가? 이상하다. 개는 나하고 프로 야구 보러 가기로 했는데.

A : 음……. 그런 얘기 안 하던데.

B : 허! 이놈이 이럴 수가? 어이구…….

A : 어, 지호다.

C : 야, 여기 모여 있었네.

B : 너 잘 왔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 봐.

C : 뭘?

B : 너 왜 나하고 야구 보러 가기로 했으면서 정호하고도 약속을 해?

C : 야구? 그래. 야구 보러 가자고. 그리고 야구도 보고 종희도 만나고, 그럼 되잖아.

A : 야구는 어디서 하는데?

C : 이번 주말 시험은 수원에서 하거든! ㉓ 이 친구야.

A : 하하하. 잘됐다. 그럼 종희도 불러서 같이 야구 보면 되겠네.

B : 그래? 그런 거였어? 그러면 되는 거구나…….

問 1 下線部③⑤はだれに対して言った言葉か。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35

- ① 지훈
- ② 종희
- ③ 지호
- ④ 정호

問 2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36

- ① 종희가 먼저 연락을 해서 주말에 지훈이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 ② 지호는 지훈이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정호와 같이 가기로 했다.
- ③ 지훈이는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지호의 행동을 오해했다.
- ④ 지호가 일부러 정호와 지훈이에게 얘기해 주려고 찾아왔다.

韓国語

C 次の会話文を読み, 下の問い(問1・問2)に答えよ。

아야 : 지영 씨, 일본에 와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지영 : 네, 조금은요.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저기요, 일본은 쓰레기 버릴 때 분리하잖아요. 그게 좀 복잡해서요.

아야 : 한국도 분리해서 버리지 않나요?

지영 : 하긴 하는데 일본이 더 복잡해요.

아야 : 그래요?

지영 : 네. 이거 좀 봐요. 지금 내가 사는 동네는 월수금엔 ‘태우는 쓰레기’고, 첫 번째 목요일엔 ‘안 태우는 쓰레기’라고요. 또 매주 화요일엔 플라스틱, 두 번째 목요일엔 페트병, 페트병도 플라스틱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목요일엔 캔이나 유리병, 더군다나 신문이나 박스, 헌 옷 같은 건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일요일에 모은대요. 너무 복잡하죠?

아야 : 아니,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요요. 우리 동네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두 종류로 나뉘야 되거든요. 용기 플라스틱하고 기타 플라스틱하고.

지영 : 어머, 그럴 수가……. 근데 용기 플라스틱이 뭔데요?

아야 : 예를 들면 비닐봉지나 도시락 용기, 그리고 컵라면 그릇 같은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지 나도 자신이 없는데, 아마 그냥 용기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얇은 것도 용기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지영 : 그럼 기타 플라스틱은요?

아야 : 이름 그대로 용기 플라스틱이 아닌 플라스틱이죠. 칫솔이나 비닐 끈 같은 거예요.

지영 : 그럼 37 도 기타 플라스틱 맞죠?

아야 : 맞아요.

지영 : 아휴, 재활용은 아주 좋은 것이고 꼭 해야 하는 건데 좀 덜 복잡한 방법은 없을까요?

問 1 37 に入れるのに適当でない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 ① 플라스틱 옷걸이
- ② 식품 포장용 랩
- ③ 일회용 숟가락
- ④ 비디오테이프

問 2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 次の①~⑤のうちから一つ選べ。 38

- ① 지영이가 사는 동네에선 삼 일마다 ‘태우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 ② 지영이가 사는 동네에선 신문이나 박스를 한 달에 두 번 모은다.
- ③ 아야가 사는 동네에선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나눠 버려야 한다.
- ④ 아야는 용기 플라스틱과 기타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방법을 확실히 안다.
- ⑤ 지영이는 쓰레기 분리가 짜증 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韓国語

第4問 次の文章を読み、下の問い(問1～5)に答えよ。(配点 24)

내가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때부터이다. 한국이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실제로 한국말을 들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던 내게 한국어로 말을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이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부산 근교에 있는 H중학교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해 여름 H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내게 말씀을 건네셨다.

“이번 방학 때 한국의 H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 학교 대표로 네가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나도 한국말은 조금 밖에 모르지만 인사말 원고는 내가 어떻게든 준비해 볼게.”

나는 39.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망설였지만 한편으로는 웬지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우리 선생님은 대학교 때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으시다고 했다. 하지만 10년이나 지나고 보니 한국말이 새롭게 느껴지신다며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한국어 회화 책들을 펼쳐 보이셨다. 순간 나는 ‘우리 선생님도 ^㉔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A) 옆구리에 한국어 책을 끼고 다니셨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인사말 원고를 준비해 주셨고 발음 지도도 해 주셨다. 하지만 처음 들어 본 한국말은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고 그저 선생님의 고운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다행히 한국어 문장의 발음을 가타카나로 표기해 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신 덕분에 나는 서투르나마 선생님을 따라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새 한국어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B) H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 찾아왔다. 인사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나는

한국 학생들을 환영하는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마디 한 마디에 힘을 주어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인사말을 마치고 조금은 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 보니 한국 학생들이 내 인사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가타카나로 쓴 발음을 그대로 외워서 했기 때문에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결심을 했다. 언젠가 제대로 배워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대학생이 된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지금은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관광안내소에서 한국어 통역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국어 인사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은 내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을 갖게 하였고 외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알게 해 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콩닥콩닥 : どきどき

問 1 39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 次の㉑~㉔のうちから一つ選べ。

- ㉑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았다
- ㉒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 ㉓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 ㉔ 속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다

韓国語

問 2 下線部④に含まれる気持ち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0

- ① 아쉬움 ② 안타까움 ③ 섭섭함 ④ 염려스러움

問 3 (A)・(B)に入れる語の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1

- ① A : 더불어 B : 마침내
② A : 항상 B : 드디어
③ A : 늘 B : 비로소
④ A : 아예 B : 벌써

問 4 「私」が下線部④のように思った理由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2

- ① 학교 대표로 인사말을 하는 동안 생각보다 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②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찌 되었건 한국어로 인사말을 마쳤기 때문에
③ 한국 학생들이 내가 하는 인사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기 때문에
④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問 5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次の①～⑥のうちから二つ選べ。ただし，解答の順序は問わない。 43 ・ 44

- ① 매년 여름 방학 때 부산 근교의 H중학교 학생들이 내가 다니는 중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
- ② 우리 선생님은 대학교 때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으셔서 별 어려움 없이 한국어 인사말 원고를 준비하실 수 있었다.
- ③ 담임 선생님은 나를 위해 한국어 문장의 발음을 가타카나로 써 주시고 직접 발음 지도도 해 주셨다.
- ④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어학연수를 가기로 했다.
- ⑤ 나는 대학교 때 한국으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관광 안내소에서 봉사 활동도 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다.
- ⑥ 내가 중학교 때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했던 경험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다.

韓国語

第5問 次の文章を読み, 下の問い(問1~5)に答えよ。(配点 24)

人間은 태어나서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 데 소요한다고 한다. 최근 영국의 신문에 실린 어느 수면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여섯 시간 이하의 수면이 계속될 경우, 잠을 푹 잤을 때보다 활동이 줄어드는 유전자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것도 있어 원래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700여 개 있었다고 한다. (A) 활동에 변화가 생긴 700여 개의 유전자 중에서 400여 개는 완전히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도 한다.

적당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질이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이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ア > 전문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권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 イ >

그러면 일본 중고등학생들은 얼마나 수면을 취하고 있을까? 중고등학생들의 수면 시간에 대한 한 기관의 통계 자료에는 조사 대상자 390명 중에서 56.9%의 학생이 다섯 시간 이상 일곱 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1%의 학생은 세 시간 이상 다섯 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16.4%의 학생은 일곱 시간 이상 열 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세 시간 미만, 혹은 열 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밤 열두 시경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오전 한 시경이 29.7%, 두 시경이 15.4%, 오후 열한 시경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2.3%에 해당하였다. 47 일본 중고등학생들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90% 이상이 열한 시에서 두 시 사이로, 비교적 늦은 시간에 잠을 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ウ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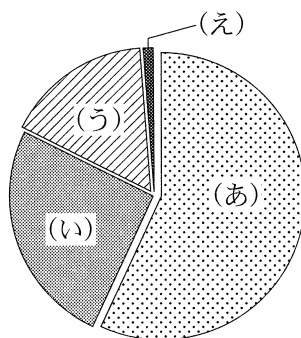
적당한 수면 시간과 질이 좋은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B) 바람직한 식생활

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 ㄱ > 최근에는 일본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아울러 체질 음식과 함께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적당한 수면 시간과 질이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아침을 거르지 않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피로감이 점점 쌓이게 되고, 불규칙적인 생활이 반복될수록 피로뿐만이 아니라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질이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과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반되다 : 伴う

問 1 次のグラフの名称と, (い)に当てはまるものの正しい組合せを, 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5



(グラフの名称)

(い)

- | | |
|------------------------|-----------------|
| ① 일본 중고등학생의 수면 시간 | 3 시간 이상 5 시간 미만 |
| ② 일본 중고등학생의 수면 시간 | 5 시간 이상 7 시간 미만 |
| ③ 일본 중고등학생의 잠자리에 드는 시간 | 12시경 |
| ④ 일본 중고등학생의 잠자리에 드는 시간 | 11시경 |

韓国語

問 2 次の文を本文中に入れるとすれば、< ア > ~ < エ > のうちどこがよいか。最も適当なものを、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6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 ① < ア > ② < イ > ③ < ウ > ④ < エ >

問 3 47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 | | |
|-----------|-----------|
| ① 이를 비롯하여 | ② 이것에 비해서 |
| ③ 이로 말미암아 | ④ 이것을 통해서 |

問 4 (A) ・ (B)に入れる語の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8

- | | |
|------------|---------|
| ① A : 게다가 | B : 과연 |
| ② A : 게다가 | B : 반드시 |
| ③ A : 그러다가 | B : 과연 |
| ④ A : 그러다가 | B : 반드시 |

問 5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次の①～⑥のうちから二つ選べ。ただし、解答の順序は問わない。 49 ・ 50

- ① 1日6時間以下の睡眠時間が1週間続くと、遺伝子の活動に異常が生じ、そのうちごく少数はまったく活動をしなくなるという研究結果がある。
- ② 適切な睡眠時間とともに良質な睡眠も重要であるが、睡眠の質を高めるには早起きが有効であると専門家は説いている。
- ③ 就寝時間と睡眠時間は密接な関係があり、夜10時ごろに就寝する人は朝5時から6時の間に起床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言われている。
- ④ 規則的な生活を送るためには朝食をとることが大切であるが、日本の中高生の中には朝食を抜く生徒が増えつつあるという。
- ⑤ 生活が不規則な人は、旬の食べ物を積極的に摂取することにより規則的な生活リズム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それが結果的に良質な睡眠につながる。
- ⑥ 現代人の就寝時間は遅くなりがちで、そのことにより肉体的疲労感を訴える人が増えているので問題になっている。